

예 시 답 안

[문제 I]

I-1 네 제시문은 공통으로 공익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긴장관계를 보여준다. [가]와 [라]는 공익과 개인의 자유 중에서 공익을 강조하는 관점을 제시한다. [가]는 개인의 사적인 삶을 누리는 자유보다는 공익에 봉사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에 보다 중요하다는 논지이다. [라]는 공유지에서 개인에게 자유롭게 방목하도록 허용한다면 결국 공유지의 목초가 고갈되어 공멸한다는 비극을 통해 개인의 무제한적 자유 추구가 공익을 해칠 것이라 주장한다. 반면에 [나]와 [다]는 공익보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관점을 제시한다. [나]는 미네르바 사태를 통해 공익을 고려할 때에도 표현의 자유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라]에서는 공익과 이윤을 같이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의 모순을 지적하고, 정부지원이 사회적 기업가의 자율성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민의 일반기업에 취업하려는 자유의지를 포기하게 만든다고 비판한 점에서 공익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다.

I-2 제시문 [마]는 대학이 기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연구를 통해 공익에 기여하고 있고 나아가 사회적 봉사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논지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의 내용을 비판하면 사회적 기업이 이윤추구와 사회적 서비스라는 두 기능이 상호 모순되어 부작용을 초래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치 않다. 이는 사회적 기업의 순기능을 간과한 것이다. 첫째, 대학이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고 사회적 난제 해결에 기여하듯이,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주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대학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듯이, 기업도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해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하는데 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는 대표적 기업유형이다. 둘째, 대학이 상업화의 추세 속에서도 사회에 기여하듯이, 사회적 기업가는 사익을 축적하기 위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창의적 사업을 통한 이윤을 공익활동에 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두 기능이 상충되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셋째, 취약계층이 일반 기업에 취업하려는 의지를 포기시킨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 대학이 저소득층 자녀들을 교육시켜 취업경쟁력을 갖게 하듯이, 사회적 기업은 고용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실무교육과 영업경험을 쌓게 하여 취업경쟁력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 III]

II-1

현대사회에서 위협의 인식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위협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위협의 성격에 대한 상이한 인식에 기인한다. 제시문 [가]는 위협 인식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에 대한 한 가지 시각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문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위협인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제시문 [나]는 위협이 충격의 정도와 발생가능성에 대한 지식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없고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대중들의 가치를 고려해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제시문 [다]는 대중의 위협인식이 그 사회의 신뢰수준 혹은 사회적 자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처럼 위협이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되고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대사회의 다양한 위협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문가들의 과학적 판단과 다르다고 해서 가짜위협에 매몰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따라서 위협문제를 둘러싼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협에 대한 과학적인 판단 외에도 대중들이 어떤 근거에서 위협을 판단하는가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위협을 논의해야한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전문가뿐 아니라 대중들이 위협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중요한 한 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러한 방식의 위협논의는 위협에 대한 전문가와 국가에 대한 대중의 신뢰수준을 높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II-2

공장 (갑), (을)의 생산량의 차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 공장의 생산함수를 알아야 한다. 총생산량은 직원 수의 일차함수, $Y=aX+b$ 의 형태를 가진다. 따라서,

(갑) $Y=aX+b$, $21=4a+b$, $165=100a+b$. $21-4a=165-100a$, $a=1.5$ $b=21-1.5*4=15$. $Y=1.5X+15$ 이고,

(을) $Y=cX+d$, $20=6c+d$, $230=90c+d$. $20-6c=230-90c$, $c=2.5$. $d=20-6*2.5=5$. $Y=2.5X+5$ 다.

직원이 80명이었을 때 생산량의 차이는 공장 (갑)의 생산량, $135(=1.5*80+15)$ 와 (을)의 생산량, $205(=2.5*80+5)$ 의 차이, 70개이다.

제시문 [다]는 구성원간의 사회적 자본의 주요 구성요소인 신뢰가 높으면 서로 간의 소통과 교류가 촉진되고 상호협력과 이익이 극대화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공장(갑)과 (을)의 생산량의 차이는 공장구성원간의 신뢰와 소통의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